

보도자료

맥쿼리인프라펀드, 씨엔씨티(CNCITY)에너지 투자 완료



● MKIF의 친환경 에너지분야 성장 동력 확보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일환

(2023년 7월 27일, 서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맥쿼리인프라펀드, 이하 “MKIF”)는 (주)씨엔씨티에너지(이하 CNCITY)의 지분 48%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1,832억원의 지급을 7월 25일자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CNCITY는 1985년에 설립된 도시가스 소매 사업자로, 현재 대전광역시 전역과 계룡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학하 및 노은 3지구, 덕명지구에 열과 전기를 함께 공급하는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건 투자 유치를 계기로 맥쿼리인프라펀드와 협력하여 종합 에너지서비스 회사로의 발전을 계획 중이다.

MKIF의 이번 CNCITY 인수는 지난 2021년 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 투자에 이은 세번째 에너지기업 투자로서 정부의 2050년 탄소 배출 제로(Zero) 목표에 부합하는 저(低)탄소 에너지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하는 한편 MKIF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여하게 된다.

나아가 CNCITY의 도시가스 사업에 추가하여 100% 자회사인 대전열병합발전의 88MW를 포함한 CNCITY의 총 발전용량은 113MW에 이르고 있어 이 분야도 MKIF 미래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MKIF는 도로, 항만, 철도 및 도시가스 사업 등 현재 총 18개 사업법인에 투자하고 있다. 2022년 12월말 기준, 투자자 수 약 18만명, 시가 총액 약 5조 원에 이르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장 인프라펀드이며 국내 투자자 비중은 84%이다.

MKIF는 2002년 법인 설립 이후 투자한 사업법인을 대부분 보유하면서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KIF의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의 서범식 대표는 “CNCITY 투자 이후 MKIF의 도시가스산업 투자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24%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하면서도 만기가 없는 영속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CNCITY와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MKIF는 최근에 투자한 부산신항 제2 배후도로 및 인천김포

고속도로와 같은 전통적인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검토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섹터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추가문의

박진욱 전무 (맥쿼리자산운용)

직통: (02) 3705 8516 / 휴대폰: 010 4102 0448

김선미 부문장 (한국맥쿼리 홍보담당)

직통: (02) 3705 8582 / 휴대폰: 010 7610 4020

sunmi.kim@macquarie.com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맥쿼리인프라펀드, 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MKIF)

맥쿼리인프라펀드는 2002년 12월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인프라펀드를 설립하고 2006년 3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로서 국내투자자 비중이 87%, 투자자 수는 18만여명이며 시가총액은 4조 9천억원으로 국내에서 대표적인 상장인프라펀드로 발전하였다.

맥쿼리인프라펀드는 일반펀드와는 달리 별도의 펀드 만기를 두지 않은 상장펀드로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며 실제 2002년 펀드 설립이후 투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 역시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장기 보유하면서 연금 성격의 배당수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펀드 만기가 있어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펀드와는 많이 다른 점이다.

맥쿼리자산운용(Macquarie Asset Management)

맥쿼리자산운용그룹은 글로벌 자산 운용그룹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그룹은 기관투자자, 연기금, 정부 및 개인투자자의 자산을 포함한 약 미화 5천 8백 2십억달러의 자산을 전세계적으로 운용 중이며,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부동산, 농업 및 자연 자산, 애셋 파이낸스, 사모대출, 주식, 채권, 멀티애셋 솔루션 등, 다양한 자산 형태와 관련한 전문 투자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그룹은 맥쿼리그룹의 자산운용부문 사업그룹이다. 맥쿼리그룹은 채권, 주식 및 상품 부문에 걸쳐 고객들에게 자산운용 및 파이낸스, बैं킹, 자문, 리스크 및 자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각화된 금융 그룹이다. 1969년에 설립된 맥쿼리그룹은 34개 국가에서 2만 5백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호주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본 설명은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제공되었다. 추가 정보는 Macquarie.com 참조.